

# 붓은 禪을 장엄하고 想은 만다라를 피웠네

## 허회태 작가, 신년 맞아 2곳서 개인전 잇달아

텍스트를 하나의 그림 문자로 형상화 하는 '이모그래피(Emography)'를 창시한 허회태 작가는 스웨덴, 미국, 독일 등에서 평단과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술가다. 서예를 기반으로 해 '이모그래피'를 만들고 이를 조형예술과 융합시키는 그의 작품세계는 무릇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닮았다.

신년을 맞아 허회태 작가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잇달아 열린다. 먼저, 허회태 작가는 김형중 문학평론가(동대부여중 교장)와 공저한 <대장경 속 한마디> 출판기념회 및 수록작품을 전시하는 개인전을 연다.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서는 김형중 평론가가 저술한 <대장경 속 한마디>에 수록된 47점의 서예와 이모그래피 작품이 전시된다.

<대장경 속 한마디>에는 방대한 대장경 속에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담고 있는 어구를 가려 뽑아 알기 쉬운 해설을 붙이고, 주제에 어울리는 이모그래피 작품을 그려 넣어 누구나 쉽게 불법의 정수를 맛볼 수 있게 했다.

주제를 압축한 이모그래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면서,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는 작품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을 보면 알 수 있다. 허회태 작가는 태양을 의미하는 상형자인 '日'자를 해의 그림으로 반복해 가득성 있게 표현했다. 이어 '日' 아래 '疋'을 더하여 '疋日'자를 형성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문장의 전달력을 높였다.

이번 전시는 경구와 그에 맞는 알기 쉬운 해설, 그리고 함축적인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대장경 보여주는 가르침의 일미(一味)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모그래피는 본디 서예 작가였던 허회태 작가의 일면이다. 최근 그의 진가를



비상비비상(Neither thought nor non-thought) 42x53x2p, 2015, 한지, 혼합재료.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지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냈다.

체로 하나의 작품이면서,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한 의미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제는 작품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을 보면 알 수 있다. 허회태 작가는 태양을 의미하는 상형자인 '日'자를 해의 그림으로 반복해 가득성 있게 표현했다. 이어 '日' 아래 '疋'을 더하여 '疋日'자를 형성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문장의 전달력을 높였다.

이번 전시는 경구와 그에 맞는 알기 쉬운 해설, 그리고 함축적인 그림이 함께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대장경 보여주는 가르침의 일미(一味)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이모그래피는 본디 서예 작가였던 허회태 작가의 일면이다. 최근 그의 진가를

<대장경 속 한마디> 출판 기념전 경구 맞춘 이모그래피 47점 전시 일필휘지로 그려낸 墨畵 '압권'

서예 · 조형예술 결합한 전시회도 근원 다가가는 철학적 사유 '눈길'

알 수 있는 것은 서예와 조형이 결합한 설치작품들이다.

오는 1월 31일까지 서울 가가갤러리에서 개최되는 초대전에서 허회태 작가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

이모그래피는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표현한 것

이다. 초대전의 설치작품은 번득이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치밀한 구성 그리고 초인적인 인내가 요구되는 것들이다.

그의 사상과 철학을 특유의 글씨체로 작은 한지에 써 내려가 개체를 만들고 이를 모아 평면에서 공간으로 조형해낸다. 2차원의 화폭에서 3차원의 현실세계로 화현시키는 것이다. 허회태 작가의 대표 시리즈 '비상비비상(非想非非想)'은 이 같은 탄생의 순간을 사유와 철학으로 버려낸 것이다.

이에 대해 허회태 작가는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제목은 불교의 공사상에 근거했다. <금강경>의 공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형적 형식도 '만다라'와 유사하다.

또한 수많은 형상들이 맺혀 있는 '만화경'과도 닮았다. 외면과 내면을 이어내는 통로로서의 '만다라'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의 '만화경'은 둘이며 하나이다.

조기현 가가갤러리 대표는 "윤회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헤어날 수 없는 욕망의 근원을 말하면서 '비상비비상'이라는 철학적 난센스를 제시한다"면서 "허회태 작가의 작품세계는 자신만이 갖는 새로운 조형질서와 현대미학을 도입해 시대감각에 부응하는 신개념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회태 작가는 1995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을 시작으로 원곡서예상, 서예문화상, 서예대전 전각 우수상,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8회, 한·카문화재단 주최 국제미술전 최고상 등을 수상했다.

이후 이모그래피를 창시해 미국 북동부 5개 지역에서 순회 전시를 하며 ABC 방송과 FOX TV 등에서 방영됐으며, 지난 2014년에는 스웨덴국립박물관의 초청으로 특별전을 열기도 했다.

현재 연건대 미술대학 회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논문 및 저서로는, '안진경 서예의 소고', '전각 예술의 생명이 의미하는 표현형식', '書에 근원을 둔 회화의 현대적 표현연구', '이모그래피와 전각 작품집인 '만야심경', '명언 명시집'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허회태, 서III-335, 일일시호일, 이모그래피의 진수를 보여준다.

## 민속 · 불교문화 속 '원숭이' 만나요

### 국립민속博, 2월 22일까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전 개최

불교와 한국전통 속에 원숭이가 어떤 의미로 자리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립민속박물관(관장 천진기)이 2월 22일까지 여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전이다.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장승업필 송하고승도(張承業筆 松下高僧圖)', '안하이갑도(眼下二甲圖)' 등 원숭이와 관련된 자료 총 70여 점 소개된다. 이번 전시는 '1부 여러 이름 원숭이', '2부 십이지동물 원숭이', '3부 길상동물 원숭이'로 구성된다.

'1부 여러 이름 원숭이'에서는 신체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불린 원숭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2부 십이지동물 원숭이'에서는 십이지동물로서의 원숭이의 역할과 의미를 '십이지변(十二

支幡)', '석제음각십이지문사각연(石製陰刻十二支文四角磬)' 등을 통해 살펴본다.

'3부 길상동물 원숭이'에서는 '출세와 장수', '모성애', '벽사', '재주꾼'으로 상징되는 길상 동물인 원숭이를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송하고승도 등 불교회화 다채 토우 비롯한 민속자료도 선봬

눈길을 끄는 것은 '장승업필 송하고승도(張承業筆 松下高僧圖)'다. 불교에서 원숭이를 '수행자를 보좌하는 동물'로 표현한다. 유명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원숭이인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송하고승도 세부 모습. 원숭이가 고승에게 경전을 법공양하고 있다.

고전 서유기의 내용에서는 '손오공'이 불경을 구하려 가는 삼장법사를 도와 변신술 등으로 온갖 잡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송하고승도' 역시 서유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소나무 아래 한 스님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꿇어앉은 원숭이가 두 팔을 내밀고 불경을 전하고 있다. 이밖에 '안하이갑도(眼下二甲圖)', '청자 원숭이 모양 인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18, 19세기의 병신년 시헌서(時憲書), '원숭이해 주요 사건'과 속담, 인물 등도 소개돼 원숭이와 관련된 문화를 총정리할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원숭이는 인간사 길흉화복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불교와 한국 전통문화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원숭이에 대한 전통작품을 살펴보고 바란다"고 말했다. (02)3704-311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큐레이터에게 듣는 불교 미술

### 국립중앙博, 병신년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중 불비상부터 루벤스까지 매주 주요일 야간개장서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소장 전시나 특별 전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매주 주요일 야간개장 시간(18:00~21:00)에 전시설명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박물관 큐레이터들이 상세하게 전시품을 해설하고,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2016년의 첫 '큐레이터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기획특별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 (1.6/1.13/1.20), 테마전 '강진 사당리 고려청자' (1.6/1.27)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함께 시작한다.

기획전 '루벤스와 세기의 거장들'은 유럽 최고의 왕립박물관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박물관의 소장품 120여점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이다.

불교 관련 전시와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상설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 2016년을 맞이하며 새롭게 단장한 중근세관 고려1실에서 '새로 개편한 고려실' (1.13)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또한 '중국의 불비상' (아시아관 중국실/1.20)과 '인도의 불교미술(인도 동남아시아실/1.20)', '삼국시대 불교미술(불교조각실/1.27)' 등에서도 불교 미술의 진면목을 알아갈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의 공간이기도 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077-9900 신성민 기자

##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을 담은 경전은 새해 최고의 선물!!

### 깨달음의 언어로 이루어진 책은 삶의 나침반, 인생의 보배

#### 불교경전 시리즈

● 불교경전총서는 당신의 불심을 일깨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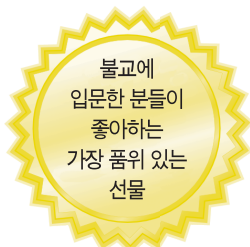
-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경전을 읽는 즐거움'은 곧 삶의 즐거움이 됩니다.
-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 보경 지음, 값 15,000원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 일진 지음, 값 15,000원
-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동봉 지음, 값 23,000원
-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 일감 지음, 값 15,000원
- 법성계를 읽는 즐거움 ■ 법상 지음, 근간

#### 콘사이스 불교사전



- 불교 공부의 길잡이, 불교 공부를 하고 경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책
- 한 권의 사전으로 불교의 거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 있다.

■ 감동동 편저, 값 45,000원



####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민족사의 책 5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 무아·무심·하심의 행복론  
 ■ 정승석 지음, 값 10,800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얻아가는 길. 버리고 비우고 낮추다 보면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된다.



**마음의 비밀** - 아뢰아식의 발견  
 ■ 오코야마 고이치 지음 · 김명우 옮김, 값 10,800원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긍정적인 삶이 된다. 마음의 구조를 해명함으로써 마음을 변형시키는 방법과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



**붓다의 인생코칭** -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해지는 법  
 ■ 우에니시 아카라 지음 · 유윤환 옮김, 값 10,800원  
 직장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붓다의 코칭을 받아라! 붓다가 알려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개발의 필독서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 스님의 참선 이야기와 강의 수행일기  
 ■ 월호 스님 · 배중훈 지음, 값 16,500원  
 참선과 카툰의 만남으로 의미에 재미를 더하다! 참선 이야기와 바른 삶을 추구하는 '냥'의 모습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준다.



**빛나는 해피불** - 운명을 바꾸는 빛  
 ■ 동휘 스님 지음, 값 16,200원  
 동휘 스님의 생령력 넘치는 글과 만다라 그 힘찬 에너지가 우리의 삶, 운명을 새롭게 빛나게 할 것이다.